

4년만의 무쟁의 타결 끌어낸 금호타이어 '힐링캠프' 소통

금호타이어가 새로운 기업문화로 노사결속력을 특출히 다지고 있다.

올해 금호타이어가 4년 만에 조성신청 없이 '무쟁의' 단체협상 타결을 이끌어 낸 데는 '힐링캠프' 등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 몫을 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힐링캠프'는 지난 2011~2012년 40여차례에 걸쳐 5000여명의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행복찾기' 교육이 시초. 자기계발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이 교육은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여기에 착안한 금호타이어는 올해 '행복찾기' 교육의 2단계 프로그램으로 '힐링캠프'를 꺼내들었다.

'힐링바다', '힐링 마인드', '힐링 라이프'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힐링캠프'는 직원 개인마다 삶을 변화시킬 계기를 찾는 것은 물론, 사내에서는 소통을 통해 신뢰 형성 및 활기찬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4월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처음 열린 힐링캠프는 광주·곡성공장 직원 60여명이 참여해 1박2일 동안 진행됐다. 학습기간 동안 처

5000여 전직원 참여

노사결속 기반 다져

가족 문화행사도 한몫

음에 소원했던 직원들이 후반엔 웃음꽃을 피웠다. '장 디톡스' 등 2인1조로 실시하는 '힐링바다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이 소통을 넘어 친밀감을 쌓아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생산직 사원에겐 회사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

광주공장 임차수씨는 "서로 몸을 부대끼며 내 자신과 동료들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 1석2조"라고 참여소감을 말했다.

정운숙씨는 "무더위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만 힐링캠프 참가를 생각하면 힘이 붙는다"며 "올해 말 정년을 앞두고 있어 동료와 함께하라는 힐링캠프가 더욱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노사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10차례의 힐링캠프는 100% 출석률을 기록할 정도

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노사를 한데 묶은 문화행사도 노사 화합의 중심에 섰다. 직원과 직원 가족들을 초청, 공연을 즐기는 '유·스퀘어 문화체험', 직원 자녀와 피자치즈를 만드는 '치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지난 2월 경영진과 노조 간부가 함께 거리에 나서 품질향상 및 노사화합을 약속한 판촉활동은 노사의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는 금호타이어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가 판촉활동 및 가족체험 등을 진행하면서 워크아웃 졸업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 있었다"며 "올해 단체교섭의 원만한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올해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하면서 워크아웃 졸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노사문제도 원활하게 해결됐다"며 "새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7월12일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힐링캠프'에서 참가자들이 2인1조로 '장 디톡스' 수기법을 배우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기아차-삼성전자-SKT '스마트 차량 사업' 협약

기아자동차, SK텔레콤, 삼성전자, 유디테크는 31일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압구정사옥에서 S '스마트 차량 서비스 사업'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종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 김창식 기아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 이명근 SK텔레콤 기업사업부부장, 이우열 유디테크 대표. /연합뉴스

동부대우전자 中시장 공략 나섰다

톈진 이어 상하이·베이징·선전에 판매 지사 설립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연초 동부그룹의 일원이 된 이후 새로 진출하는 첫 해외시장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3월 설립한 톈진(天津) 영업총괄을 중심으로 상하이(上海)·베이징(北京)·선전에 판매 지사를 최근 차례로 설립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상하이 최대 변화가인 난징루(南京路)에 위치한 디이(第一)백화점과 푸둥(浦東) 중심가에 있는 바바이반(八百伴) 백화점 입점을 완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등 상하이 주변 10개 도시의 가전 양판점에 전용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주부터 중국 최대 규모의 주거용품 판매점인 B&Q 차이나에 입점했으며, 다음 달까지 중국 최대 가전양판점인 귀베이(国美) 입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동부대우전자는 중국시장에서 저가의 중국산 가전 제품과 경쟁을 피하고 '한국산'을 강조하며 구매력 있는 부유층을 주로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도어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상하이·베이징 등 중국 동부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동부대우전자' 브랜드를 알리면서 주변 위성도시로 영업망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대도시인 1선 도시는 백화점, 상도급인 2선과 중소도시인 3선 도시는

양판점을 뚫는 전략도 세웠다.

동부대우전자 냉장고와 세탁기는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도어 대용량냉장고 '클라세'는 상하이 진출 백화점 전 매장에 입점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는 이달 초 중국 현지 유통업체와 1만대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지 출시 2주 만에 1600대가 판매됐다.

연 10%의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백색가전 시장은 지난해 250조원 규모로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현지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된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현지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주택·건설업계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 요구

정부가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도교통부는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대한 금액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추진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택·건설업계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팔레스토랑에서 열린 서울 수도권교통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 조치가 6월 말 종료된 만큼 영구 인하 방안이 추진되면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유가격 인상 억제

정부 대형마트 단속

정부가 우유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대형마트 단속에 나섰다.

업계 안팎에선 원유가격 연동제를 시행하며 소매가를 동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온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는 전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하나로클럽 관계자를 정부 서울청사로 불러, 최근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8월1일로 예정된 원유가격 조정을 앞두고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대형마트에서 우유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상 자체 요청이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우유업계는 원유가격 인상에 맞춰 이르면 내달초부터 원유 판매가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연합뉴스

광주·전남기업 8월 경기전망 제조업 맑고 비제조업 흐림

광주·전남 지역의 기업 가운데 제조업체는 앞으로의 경기를 밝게 내다 보지만 비제조업체는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종업원 5명 이상 5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3년 7월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 결과 제조업의 7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전달보다 7p 상승했고 업황전망BSI는 74로 전달보다 3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전국 수준(업황BSI 72, 업황전망BSI 73)으로 회복한 것이다.

7월 매출BSI는 80으로 전달보다 1p 하락, 매출전망BSI는 79로 3p 하락을 각각 기록했다.

채산성BSI는 87로 전달보다 6p 상승했고 채산성전망BSI는 81로 전달과 같았다.

광주·전남지역 비제조업의 7월 업황BSI(80)와 업황전망BSI(79)는 각

각 전달보다 5p와 3p 하락했다.

매출BSI는 86으로 전달보다 4p 하락, 매출전망BSI는 84로 5p 하락을 각각 나타냈다. 채산성BSI(94)와 채산성전망BSI(90)는 전달보다 각각 6p와 3p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7월 자금사정BSI는 90으로 전달보다 1p 상승한 반면 8월 자금사정전망BSI는 88로 5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14.03 (-3.02)	▲ 코스닥지수 554.31 (+7.88)	▲ 금리(국고채 3년) 2.92% (+0.01)	▲ 원·달러 환율 1123.50원 (+9.70)
----------------------------	---------------------------	-------------------------------	-------------------------------

잔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